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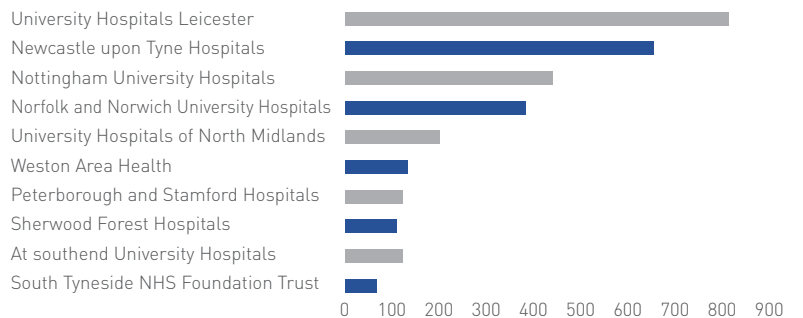
영국 보건부는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평일과 주말의 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Seven-day NHS를 구현하려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표준근로시간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새로운 수련의 근로계약을 두고 영국의사협회와 협상 중이다. 영국의사협회는 정부가 제시하는 새로운 근로조건이 수련의의 급여를 삭감하는 등, 수련의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비판하며, NHS 역사상 첫 수련의 파업이라는 강경한 방법으로 정부에 맞서고 있다.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되었던 수련의 파업은 전날의 극적인 타협으로 연기되긴 했으나, 재협상이 서로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2016년 1월 13일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난항 중인 영국 수련의 근로계약 협상

영국 보건부의 강수와 의사협회의 맞불

영국의 많은 NHS 병원들은 12월 1일로 예정된 수련의 junior doctors 파업에 대비해 이날 예약된 대부분의 수술을 연기했고, 환자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그림 1 참조). 1948년 NHS 설립 이후 최초가 될 뻔 했던 이 파업은 영국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와 영국의사협회 British Medical Association의 극적인 협상 재개로 잠정 연기되었다.

그림 1 파업으로 연기된 병원별 진료·수술 예약 수



출처 : Press Association

BBC

의료 인력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영국 의료시스템의 사역마(使役馬)로 불리는 수련의(53,000명)의 근로조건은 영국 정부가 근로계약으로 정한다. 최근 제레미 헌트 Jeremy Hunt 보건장관이 2016년 8월부터 근로조건을 변경한 새로운 근로계약을 강행하겠다는 강수를 두자 영국의사협회는 수련의 파업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수련의 근로계약 변경에 대한 보건부와 영국의사협회의 협상은 2008년에 시작되었고, 2000년에 체결된 기존 계약의 변경 필요성을 영국의사협회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구체적 변경안에 반대하는 영국의사협회가 2014년부터 협상에 응하지 않자, 영국 보건부가 강수를 둔 것이다.

영국 보건부의 적극적인 공세는 올해 초 선거에서 보수 정권이 공약한 “Seven-day NHS” 와도 관련이 깊다. 평일 입원보다 주말 입원 시 환자의 사망률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주말의 병원 활용도를 높이는 데 찬성하는 여론을 배경으로 캐머런 Cameron 정부는 영국 가정의 General Practitioner의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전문의의 주말 진료 선택권을 폐지하려는 등, 주말의 의료 접근성을 평일 수준으로 높이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수련의의 토요일 근무시간을 Social Hours에서 Unsocial Hours로 변경하는 안이 주된 내용인 새 근로계약도 이 정책의 일환이다.

“

영국의사협회 수련의위원회는 무엇보다 표준근로시간 확대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안대로 기본 급여가 11% 인상되더라도 표준근로시간 외 수당이 크게 줄어들어 수련의의 평균 임금이 30~40%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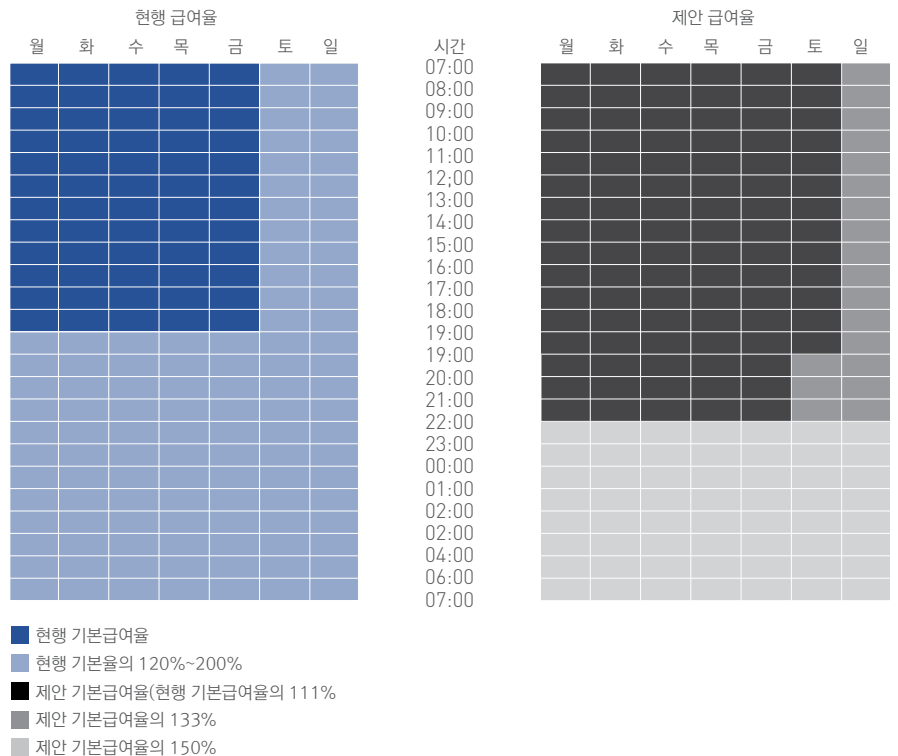
”

정부안의 주요 골자

정부가 제시하는 수련의 근로기준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준근로시간 확대(그림 2 참조): 평일 오전 7시~오후 7시까지인 표준근로시간을 평일 오전 7시~오후 10시, 토요일 오전 7시~오후 7시까지로 확대
- 기본 급여(표준근로시간 급여) 11% 인상
- 기존 Banding System 폐지: 표준근로시간 외 시간 근무에 대해 지급하던 높은 수준의 특별수당을 폐지하고 새로운 초과근무수당으로 대체 - 향후 토요일 오후 7시~10시, 일요일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의 근무는 표준급여의 1.33배, 평일과 주말 오후 10시~오전 7시 까지의 야간 근무는 표준급여의 1.5배 지급
- 자동급여인상 시스템 폐지: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의에 입문하면 중도에 개인적인 연구 등을 위해 휴직을 해도 연차별로 급여가 자동 인상되던 시스템을 폐지하고, NHS가 인정하는 수련의 복무 기간만 급여 인상에 반영
- 근무시간 제한 강화: 7일 동안 연속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절대근무 상한시간을 91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고, 연속 야간 근무를 4일 이상 못하도록 하는 등, 근무시간 제한을 강화하고, 수련의가 병원 측의 무리한 근무시간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근무일정검토work schedule review 제도 도입

그림 2 기존 근로조건과 새로운 근로조건의 근무시간별 급여기준 비교



출처: NHS고용주협회

B B C

수련의들의 반발

영국의사협회 수련의위원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 Junior Doctors' Committee는 무엇보다 표준근로시간 확대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안대로 기본 급여가 11% 인상되더라도 표준근로시간 외 수당이 크게 줄어들어 수련의의 평균 임금이 30~40%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평일 오후와 토요일 저녁을 동등하게 취급할 경우 응급의료Accident & Emergency 같은 표준근로 시간 외 시간 근무가 잦은 분야를 의사들이 회피하게 될 것이며, 정부가 2019년까지 새 계약에 따른 급여 삭감분을 보전해 준다고 하지만 그 이후의 계획이 뚜렷이 제시되어 있

“

표준근로시간을 주말로 연장함으로써 수련의 근로시간이 지금보다 늘어날 것에 대한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보건부는 주장한다. ”

지 않다고 주장한다.

로열대학어린이병원Royal College of Paediatrics and Child Health은 수련의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정부안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병원장은 기존의 자동급여인상시스템을 폐지하게 되면, 파트타임 수련의와 같이 책임 단계로 가는 과정에서 자의와는 무관한 지연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수련의들이 재정적으로 큰 곤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은 전문 분야에서의 성장과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망치는 것이라 주장했다. 병원장은 정부가 제시하는 새로운 근로조건은 수련의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환자의 건강과 복지에 해를 끼치고, 정부의 의도와 달리 24/7 의료서비스 제공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 것이며, 혁신과 의료 진보를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보건부의 주장

당초 토요일도 오후 10시까지를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하려던 안에서 한 발 물러서 토요일 오후 7시까지를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 영국 보건부는 수련의들이 정부안을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수련의 75%의 급여는 수련의들의 우려와 달리 오히려 약간 인상될 것이며, 수련의 24%의 급여가 조금 삭감될 수 있는데 정부는 이 삭감된 급여를 보전해 줄 것이라고 한다. 수련의 1%(약 500명)는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어 수련의 본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에 따른 급여 삭감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책임과 급여를 연계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급여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련의 중에는 자기보다 높은 급여를 받지만 책임 등급이 낮은 수련의들의 교육을 맡고 있는 수련의들이 많은데 정부는 이것을 불공평한 처우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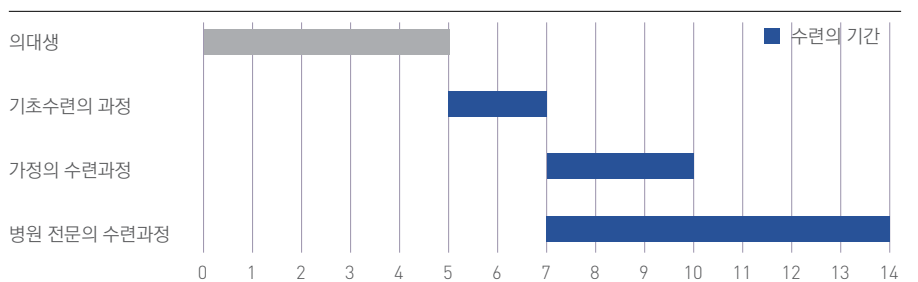
표준근로시간을 주말로 연장함으로써 수련의 근로시간이 지금보다 늘어날 것에 대한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보건부는 주장한다. 절대 최대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을 현재 수준보다 줄이고, 교대근무, 당직 근무 등에 대해 보다 더 안전한 조치들을 도입하며, 병원에서 지시한 근무일정에 대해 수련의가 감독기관에 어느 때라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 안전한 근로시간 확보를 통해 의사와 환자의 안전을 더 강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응급의학, 정신과 의학, 가정의와 같이 기피되는 의료분야에는 유연급여보상제도를 도입해 이 분야로의 유인을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새로운 근로조건이 비용-중립적 조치임을 밝힌 제러미 헌트 보건부 장관은 새 계약 도입의 주된 목적은 비용절감이 아니라, 영국 국민들이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평일과 주말의 차이 없이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영국 수련의의 급여 수준

영국에서는 5년 과정의 의과대학을 마치면 2년 과정의 공통 기초수련의 과정(junior doctor foundation training)을 거쳐 3년 과정의 가정의 수련과정(GP training)과 7년 과정의 병원전문의 수련과정(hospital specialty training) 중 한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3 수련의의 경력 경로



출처:BMA

BBC

“

첫 해 수련의 기본 급여는 £23,000에서 시작되며, 다음 해에 £28,000로 인상된다. 전문의 수련과정에 들어가면 평균 £30,000에서 £47,000를 받는데, 여기에 표준근무시간 외 근무에 대한 특별수당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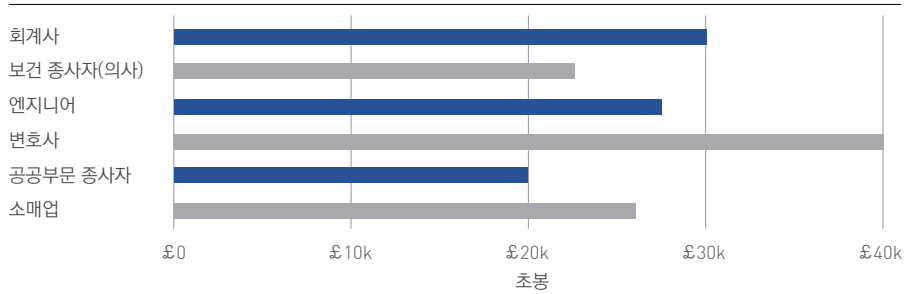
이처럼 영국 의사들의 기본 급여는 다른 직업에 비해 낮다.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새로운 계약을 강행할 경우, 수련의 10명 중 7명이 의료계를 떠날 것이라고 한다.”

첫 해 수련의 기본 급여는 £23,000에서 시작되며, 다음 해에 £28,000로 인상된다. 전문의 수련과정에 들어가면 평균 £30,000에서 £47,000를 받는데, 여기에 표준근무시간 외 근무에 대한 특별수당(banding supplements)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다. NHS 고용주협회(NHS Employers Organization)에 따르면 수련의 평균 연봉은 £37,000이다. 영국에서 간호사의 첫 해 연봉은 £22,000이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평일 8시 이후부터 새벽 6시까지는 초과수당이 지급된다. 이와 비교해 교사의 첫 연봉은 £23,000, 일반 대학 졸업자의 연봉은 £21,000~£37,000다(표 1, 그림 4 참조).

표 1 영국에서의 직업별 초봉 비교

직업	급여
법률 회사	£37,000
은행, 금융 서비스	£31,250
컨설팅, 비즈니스 서비스	£28,500
IT & Telecommunication	£28,500
회계, 전문직 서비스	£28,000
에너지, 물, 유틸리티 회사	£26,750
엔지니어링, 공업 회사	£25,750
건설회사, 컨설팅	£25,500
공공 분야	£23,750
교사	£23,000
판매업	£21,500
기타	£22,000

그림 4 직업별 초봉 비교



제공 : Factmint

이처럼 영국 의사들의 기본 급여는 다른 직업에 비해 낮다. 그들은 긴 근로시간을 견뎌야 하고, 스트레스가 비교적 높은 업무환경에서, 아파하며 죽어가는 환자들을 대해야 하는 정서적인 어려움까지 안고 일해야 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많은 의사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갖고 있다. 이들의 알코올 의존율과 가족해체율도 다른 직업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의대를 졸업한 수련의는 평균 £64,000에서 £80,000의 빚을 지게 된다. 최근에는 첫 해 수련의에게 제공하는 무료 숙박 프로그램도 사라졌고 연금도 삭감됐다 - 정부는 새 계약에 따라 기본급여가 11% 인상되면 정부의 연금 기여도도 상승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영국의사협회는 개별 훈련의가 지불해야 할 연금 보험료가 상승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새로운 계약을 강행할 경우, 수련의 10명 중 7명이 의료계를 떠날 것이라고 한다.

재협상

한편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정부는 보건부가 제안하는 새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만약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만 계약을 이행할 경우 지역에 따라 의사들의 근로조건에 커다란 격차가 생기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파업이 예정된 하루 전 극적으로 정부와 의사협

회가 재협상하기로 타협하면서 12월 1일, 8일, 9일로 예정된 파업은 잠정 연기됐다. 현재 재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NHS 역사에서 첫 번째 수련의 파업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는 있다. 재협상의 결과가 영국정부의 Seven-day NHS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 문헌

- "How much are junior doctors paid, and why are they threatening to strike?," The Telegraph, 4 December 2015
- "Junior doctors condemn new contract they say could cut pay by 40%," The Guardian, 2 December 2015
- "What exactly do junior doctors do?," BBC News, 2 December 2015
- "Disruption expected as junior doctors' strike called off," BBC News, 1 December 2015
- "My operation was cancelled due to strike plans," BBC News, 1 December 2015
- "Junior doctors row: What you need to know," BBC News, 30 November 2015
- "Hunt tries to stop junior doctors' strike with pay and working hours guarantees," The Guardian, 11 November 2015
- "Jeremy Hunt has torn up social contract between junior doctors and the state," The Guardian, 11 November 2015
- "Jeremy Hunt: I cannot negotiate on manifesto promise of 24-hour NHS," The Guardian, 4 November 2015
- "Junior doctors' pay: How does your job compare?," BBC News, 15 October 2015
- "New junior doctors' contract changes everything I signed up for," The Guardian, 21 September 2015
- "NHS weekend: NHS 7-day plans have support – Hunt," BBC News, 5 September 2015
- "Seven-day working: the bigger picture," BBC News, 4 September 2015
- "Seven-day NHS – claims and counter claims," BBC News, 13 August 2015
- <http://www.nhsemployers.org/your-workforce/need-to-know/junior-doctors-contract>
- <http://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junior-doctors-contract-offer-main-points/junior-doctors-contract-offer-main-points>
- <http://www.nhsemployers.org/case-studies-and-resources/2015/11/junior-doctors-contract-separating-the-facts-from-the-myths>
- <http://www.rcpch.ac.uk/system/files/protected/news/Open%20from%20RCPCH%20to%20trainees.pdf>

1) Consultant라고 불리는 영국 전문의에게는 주말에 수술 신청이 들어와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데, 이 권리를 폐지하려는 협상이 진행 중임.

2) Social hours는 주말이나 평일 오후처럼 직장인의 일반적인 근무시간 외 시간으로 개인의 취미나 사교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일컫음. Unsocial hours는 그 반대 개념임.